

##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6/5주간 교재)

롬10:9-17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사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오래 살던 짧게 살든, 의미있는 삶을 살다 가면 그것이 감사하고 족한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의미있고 축복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세상에서 받는 축복된 일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은 금생 뿐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1) 사도 바울은 이 의미있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말한다.(9,10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결국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의와 생명으로 나아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만약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 고백은 별 의미가 없다. \*영접기도의 허와 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한다. (11,12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히9:23)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2) 우리 인생이 진정 의미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의미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1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일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 때가 되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이유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지라도 그 뿌려진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고는 곧바로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다. (요20:21)

\*모든 교인들의 호칭이 선교사인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우리의 외침 소리가 설득력있게 하기 위해서도 세상을 향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새 계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외치는 복음이 설득력있게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우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성공은 뒷전이 될지라도 남을 위해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물론 이 일은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외과 의사였던 네팔의 강원래 선교사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꼭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해야하느냐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분명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17절)

·더 나아가서는 세상 75억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한 날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야 한다.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내가 가서 혹은 내가 보내서 복음이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일이다.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의료 및 교육 선교(볼리비아 우세볼 대학 정은실 선교사 부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운자에 선교사님이 네팔에 연약 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셨다. 현재는 약 340명의 어린이들이 24명의 교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이런 사역이 더 활성화 되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학습 및 적용 문제:

- 1) 가장 의미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의 일은 무엇이라고 하는가?(9,10절)
- 2)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인생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하는가?(14,15절: 뱀전2:9; 고후5:18,19)
- 3) 나는 지금 의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어보자.